

“오싹한 호러 콘텐츠로 지루한 일상 탈출”

‘호러 할로윈 The Escape’ 11월 21일까지
호러 포토존·워크스루형 호러 어트랙션 눈길
매직아일랜드, 좀비프리즌 탈출 빅대디 설정

롯데월드 어드벤처(대표이사 최홍훈)가 비대면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된 할로윈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21일까지 실시하는 ‘호러 할로윈 The Escape’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인스타그램러블한 포토존과 공연 등의 볼거리 중심으로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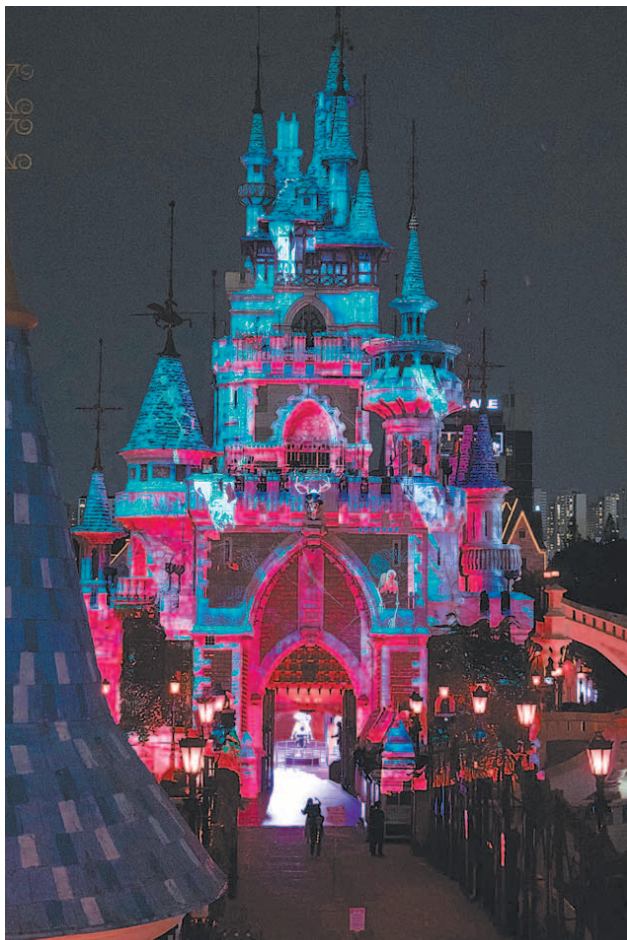
아외 매직아일랜드는 이 기간 좀비프리즌에 갇혀 있던 빅대디가 탈출하여 복수극을 준비한다는 설정 아래 핏빛 좀비아일랜드로 바뀐다. 입장하기 전 ‘좀비 프리즌’(Zombie Prison)이라 적혀있는 감옥문이 할로윈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메인브릿지로 내려가면 본격적인 호러 포토존이 등장한다.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컨테이너 박스, 좀비가 거꾸로 매달린 호러 공중전화박스, 매직게슬 옆 좀비에게 습격받은 경찰차 포토존 등이 있다.

해가 진 밤에는 화려한 불기둥과 함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캐슬좀비’ 공연이 매일 2회 열린다. 세계 테마파크 중 최초로 크리스티(CHRISTIE)사의 미스틱(Mystique) 기술을 적용한 미디어 맵핑으로 캐슬 외벽에 할로윈 분위기에 맞는 섬뜩하지만 화려한 영상이 펼쳐진다.

그동안 할로윈 축제에서 높은 공포 레벨로 호러 마니아의 인기를 모았던 ‘좀비프리즌’은 올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했다. 감옥 콘셉트의 워크스루형 호러 어트랙션으로 호러 전문 인플루언서 왓섭이 프리퀼 스토리를 구성했고, 영화세트 전문 제작사가 실감나는 감옥 시설을 제작했다. 초반부에 어두운 감옥을 지나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비밀통로, 고문실 등을 거쳐 감옥을 탈출하는 과정으로 구성했다. 구간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소품과 이벤트가 매력이다.

●실내어드벤처는 온 가족 즐기는 ‘큐티 할로윈’
‘매운 맛’의 매직아일랜드 할로윈 테마와 달리 실내



첨단 미디어 맵핑 기술을 통해 호러 분위기로 변신한 매직캐슬, 할로윈 사진 찍기 좋은 호러 공중전화박스, 매직아일랜드 호러 포토존의 경찰차(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벼운 분위기의 ‘큐티 할로윈’ 테마로 운영한다. 만남의 광장에는 호박 속 개구쟁이 아기유령들과 할로윈 코스튬을 입은 거대한 로티가 있고, 드림캐슬 포토존과 잭오랜턴으로 치장한 배너, 가로등이 할로윈 분위기를 자아낸다.

14일부터는 노루페인트와 협업한 할로윈 하우스 포토존도 오픈한다. LED조명으로 빛나는 하우스는 벽면이 각각 다른 콘셉트로 꾸며져 아이와 이색적인 사진도 남길 수 있다.

매일 오후 2시에는 큐티 할로윈 콘텐츠의 메인을 장식하는 꼬마유령, 호박로티가 할로윈 캔디와 함께 나오는 ‘로티스 할로윈 파티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이밖

에 주말에 공연하는 ‘할로윈 로티로리 송앤 댄스?’, 주중 공연인 로리와 캐릭터 친구들의 ‘로티스 편편 뮤직쇼’ 등의 공연도 열린다.

축제 기간에 다양한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30일까지 카카오페이로 현장 매표소 혹은 키오스크에서 결제 시 본인과 동반 1인까지 50% 할인하고 좀비프리즌 입장권도 무료로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로 온라인 결제하면 본인 및 동반 1인 50% 할인에 할로윈 콘셉트의 상차 분장권을 포함한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KT회원 할인, 학생 대상의 ‘가보자고 좀비살롱/좀비프리즌’도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올 가을에도 ‘뽀글이’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가볍고 따뜻한 데다 스타일링까지 편해 전 세대부터 사랑받는 아이템이다. 플리스룩을 선보이고 있는 K2 전속모델 수지. 사진제공 | K2

“뽀글이가 돌아왔다” 가을 플리스 대전…올해 키워드는 ‘친환경’

K2, WWF 컬래버 플리스 자켓 선보여
리사이클 소재…보온·방풍 뛰어나

‘뽀글이’의 계절이 돌아왔다. 독특한 생김새와 촉감을 지녀 일명 ‘뽀글이’로 불리는 양털 모양 원단의 플리스가 올 가을에도 대세로 등극할 기세다.

플리스는 가볍고 따뜻한 데다 스타일링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톱 컬처지만 해도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전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가을을 맞아 출시하고 있는 플리스 자켓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

이 눈에 띈다.

K2는 글로벌 자연보전 기관인 WWF(세계자연기금)와 컬래버레이션한 ‘WWF 비숄 플러 자켓’을 선보였다. 버려진 페트병에서 추출한 리사이클 소재를 적용해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현한 플리스 자켓이다.

소프트한 터치감으로 착용감이 뛰어나며 안감을 적용해 보온성이 우수하고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데님 팬츠 등과 함께 코디하면 데일리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노스페이스는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한 K-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선보였다. 대표제품인 ‘플레이 그린 플리스 재

킷’은 세미 루즈 핏의 실루엣에 얇아짐 부분의 투웨이(2WAY) 지퍼를 달아 원하는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블랙야크가 출시한 ‘시트 다운 플리스’ 시리즈는 남녀공용 플리스 리버시를 다운 후디 자켓이다. 플리스는 셰트프 플리스와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에코 플리스 소재를 함께 사용했다. 뒤집으면 중형 푸퍼 다운으로 입을 수 있다.

파타고니아의 ‘파일 플리스 컬렉션’은 100%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하이-파일 플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부드러운 촉감과 내구성을 강화했다. 오랜 시간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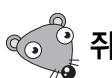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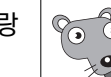
용평리조트, 숲속 힐링 공간 ‘애니 포레’ 오픈



평창 용평리조트는 새로운 숲속 힐링 공간 ‘애니 포레’를 17일 오픈한다. ‘애니포레’는 애니멀 포레스트(Animal Forest)의 줄임말로 해발 900~1000m 발왕산 자락에 위치했다. 순한 얼굴로 인기가 높은 알파카를 비롯해 다양한 야기동물들과 교감을 하는 알파카 목장(사지), 대한민국 최대 독일가문비나무 군락인 가문비지유실이 대 표 불거리다. 심유계곡길과 시와음악길 등 다양한 산책로와 포토존 등도 갖추고 있다.

평창 용평리조트는 새로운 숲속 힐링 공간 ‘애니 포레’를 17일 오픈한다. ‘애니포레’는 애니멀 포레스트(Animal Forest)의 줄임말로 해발 900~1000m 발왕산 자락에 위치했다. 순한 얼굴로 인기가 높은 알파카를 비롯해 다양한 야기동물들과 교감을 하는 알파카 목장(사지), 대한민국 최대 독일가문비나무 군락인 가문비지유실이 대표 불거리다. 심유계곡길과 시와음악길 등 다양한 산책로와 포토존 등도 갖추고 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17일 (금) 음력: 8월 1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신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한다. 관세수를 조심해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기도 한다.	사방이 위협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하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입무에 충실하되 경계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는 고독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될 것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깨끗하며, 조용한 상태이다.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주변인의 도움이 예상된다. 열심히 움직여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신중하고, 문기를 거듭하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이 대처법이다.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강해지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17일(금)	
서울 10/0	인천 0/0	춘천 20/20			
 19 27	 20 27	 17 26			
강릉 80/80	대전 60/60	전주 80/30			
 18 22	 19 23	 20 26			
광주 70/60	대구 80/70	부산 90/90			
 21 28	 20 22	 22 24			
창원 80/80	제주 9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1 24	 24 26	최저			
		날씨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6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